

박병호 시즌 11호 홈런 팀 승리 이끌어

강정호·김현수 안타행진·오승환 1이닝 탈삼진 셋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11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도 나란히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7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9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둘렀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13(169타수 36안타)에서 0.220(173타수 38안타)으로 올랐다.

박병호는 팀이 4-5로 뒤진 6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투수 천웨인의 2구째 구속 87마일(약 140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지난 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2경기 만에 터진 시즌 11호 홈런이다.

미네소타는 7-5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다. 시즌 성적은 18승 40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꼴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강정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3루수 겸 4번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98(84타수 25안타)에서 0.292(89타수 26안타)로 소폭 하락했다. 팀이 1-0으로 앞선 1회말 무사 2, 3루 기회에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상대

선발 투수 노아 신더거드의 2구째 구속 97마일(약 156km)짜리 싱커를 받아쳐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우전 적시타로 연결시켰다.

피츠버그는 이날 메츠와 10회 연장전 접전 끝에 5-6으로 역전패했다. 전날 더블헤더를 싸움이던 피츠버그는 3연승 기회를 놓치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32승27패)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시즌 4번째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도왔다.

김현수는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캄든 야드에서 열린 캔자스 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78에서 0.372(78타수 29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김현수는 팀이 3-0으로 앞선 2사 2루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김현수는 캔자스시티 선발 에딘손 볼케스를 상대로 1SIB 상황에서 3구째 78마일(약 126km) 너클 커브를 때리며 적시타를 기록, 2루 주자 라이언 플라헤터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4타점째.

김현수는 이어 매니 머처도 타석 때 2루 도루까지 성공했다. MLB 데뷔 이후 25경기 만에 이뤄낸 첫 도루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실패했다.

볼티모어 선발투수 크리스 틸먼(8승1패)이 7⅓이닝 8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볼티모어는



박병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둘렀다.

35승23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렸다.

오승환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7회말 구원 등판해 1이닝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은 평균자책점을 1.76에서 1.71로 낮췄다. 총 투구 수는 18개였고, 직구 최고 시

속은 94마일(약 151km)이었다.

오승환의 1이닝 3탈삼진 경기는 이날이 5번째다. 또 그는 3경기 연속으로 무피안타 경기를 이어가게 됐다.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내티에 12-7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31승28패)를 기록 중이다.

/김민근기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순위 추첨 이원화 진행

프로농구 국내선수 신인 드래프트의 지명 순위 추첨과 지명을 각각 다른 날짜에 이원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KBL은 9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내선수 신인 드래프트의 구단 순위 추첨과 선수지명 행사 날짜를 달리해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순위 추첨을 앞당겨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한 방침이다. 지명 순위를 받은 구단은 드래프트 당일까지 다각도로 선수 구성을 고민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타구단과 활발한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L은 올해 드래프트에 국가대표 이종현(강상재(이상 고려대), 최준용(연세대)) 등 대우들이 많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드래프트는 10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명 순위 추첨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선 이전 시즌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한 8개 팀이 각각 12.5%의 확률로 1~4순위 지명권을 획득할 수 있다. 1~4순위에서 지명권을 얻지 못한 나머지 4개 팀은 정규리그 성적 하위부터 상위 순으로 40%, 30%, 20%, 10%의 확률로 5~8순위를 갖는다.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과 우승팀이 9순위와 10순위 지명권을 갖는다. 올해 드래프트는 개막을 앞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클리블랜드 NBA 파이널 3차전 골든스테이트 완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30점 차로 누르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클리블랜드는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쿼크론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의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7전4선승제) 3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카일리 어빙의 활약을 앞세워 120-90으로 대승을 거뒀다. 1차전과 2차전을 연달아 패한 클리블랜드는 연패에서 벗어나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시리즈 전적 1승2패. 이번 플레이오프 홈 8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르브론 제임스가 32득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펼쳤고, 카일리 어빙이 30득점 4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팔팔 날았다. J.R. 스미스는 20득점 4리바운드, 트리스탄 톰슨은 14득점 13리바운드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클리블랜드는 1쿼터에 33점을 올리며 17점차로 경기를 리드했다. 2쿼터에는 한 때 격차가 7점까지 좁혀졌지만 3쿼터 초반에 트리스탄 톰슨과 어빙의 연속득점으로 코트를 누볐다. 어빙은 3쿼터까지 25득점, 제임스는 24득점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89-69에서 4쿼터를 시작한 클리블랜드는 점수 차를 30점으로 늘리며 경기를 마쳤다.

/김민근기자

한국 양궁, 리우올림픽 앞두고 터키 월드컵 출전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대표팀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현대 양궁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오는 8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실전 무대다. 아직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국가들이 이번 대회에서 막자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 효과적인 실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콜롬비아 매데이라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패조의 상흔을 자랑했다. 특히 여자부 랭킹 1위 최미선(광주여대)은 이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팀전에서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양궁은 리우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남녀 개인전·단체전) 석권에 도전한다.

/김민근기자

2AM 출신 감성 보컬 정진운 록 밴드 사운드 '윌' 발표

"제 음악적 정체성은 록이죠. 앞으로는 재밌는 음악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춤추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음악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9일 정오 가수 정진운(26)이 발표한 맥시 싱글 '윌(WILL)'은 정진운 음악의 자기소개서다. 보컬 그룹 2AM 출신의 감성 보컬 정진운에게 기대했던 음악, 대중적으로 잘 통할 감성 발라드는 오히려 치우고 자신의 취향과 색이 한껏 묻어나는 록 밴드 사운드로 돌아왔다.

8년여간 몸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뒤 처음 발표하는 앨범이다.

"하고 싶은 음악을 허락받고, 완성해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냥 학생 때처럼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모든 걸 보여줘야 해서 의상 음향, MR까지 많은 걸 고민해야 됐거든요. 오늘은 좀 기쁜 날이죠. 이제 제 손을 떠났으니깐"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까지 도맡은

"지금까지 너무 틀에 갇혀있던 것 같아 벗어나기 위한 앨범"



공 들인 앨범이지만 음원 차트 1위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두 시간 동안 춤을 추고, 선착순 100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 정도다. 잘 팔리는 음

악은 아니라는 거다.

타이틀 곡 '윌(WILL)'은 레트로한 사운드와 펑크 요소가 가미된 댄서블한 록으로 정진운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춤을 추고 싶어서 만든 노

래"라는 소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곡이기도 하다. 래퍼 타이거 JK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기타 솔로로 함께 한 블루스 기반의 록 '트릭키(Tricky)'와 '어반자카파'의 조연이가 참여한 서정적인 록발라드 '꽃잎 떨어질 때가 담겼다'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펼친 앨범인 만큼 가사는 경합담이다.

이번 앨범은 정진운이 앞으로 할 음악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2AM의 감성 발라드에서 기타 연주와 함께하는 어쿠스틱, '걸어온다' 등의 브리티시 록을 거쳐 지금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너무 틀에 갇혀있던 것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앨범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앨범을 낼 생각이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무대를 보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재밌는 무대와 음악으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켜 드리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오성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